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수정안 발표 연기 왜

경기 악화·공법·환경 난제 수두룩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위한 기본계획 수정안 발표가 당초 계획인 이번 연말을 넘겨 내년 1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위한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해 31일 청와대에 보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 완공이 기본계획 수정안에 담길지는 미지수다.

◇수정안 발표 연기 배경=당초 국토해양부는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위한 기본계획 수정안을 이번 연말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 발 금융위기가 국내 경제를 강타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에는 막대한 재정 투입, 공법 확보, 환경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도 수정안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기자회견과 통화에서 "경제 위기 대책 마련 등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위한 기본 계획 수정안 마련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안에 '2012년 조기 완공' 담기 힘들 듯

오송~광주 2013년·광주~목포 2015년 가능성

한편 국토해양부가 31일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정안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짐에 따라 최종 발표 시기는 1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정책 방향 등을 기본계획 수정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부 논의 과정 등을 고려한다면 1월 중순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에는 난관이 많다는 점에서 기본 계획 수정안 마련이 1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조기 완공 가능성 및 시기=일단 기본계획 수정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 완공을 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다 전 구간 동시 착공을 위한 기술 및 공법 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 환경성 검토 문제도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정관계에서는 호남고속철도 2012년 완공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1~2년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즉, 오송~광주 구간은 2013년, 광주~목포 구간은 2015년 완공이 기본계획 수정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오송~광주 구간의 완공이 2년 이상 늦춰질 경우, 호남 민심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늦어도 2013년 완공이 기본계획 수정안에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그대로 기본 계획 수정안에 담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그동안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과 관련한 대통령의 공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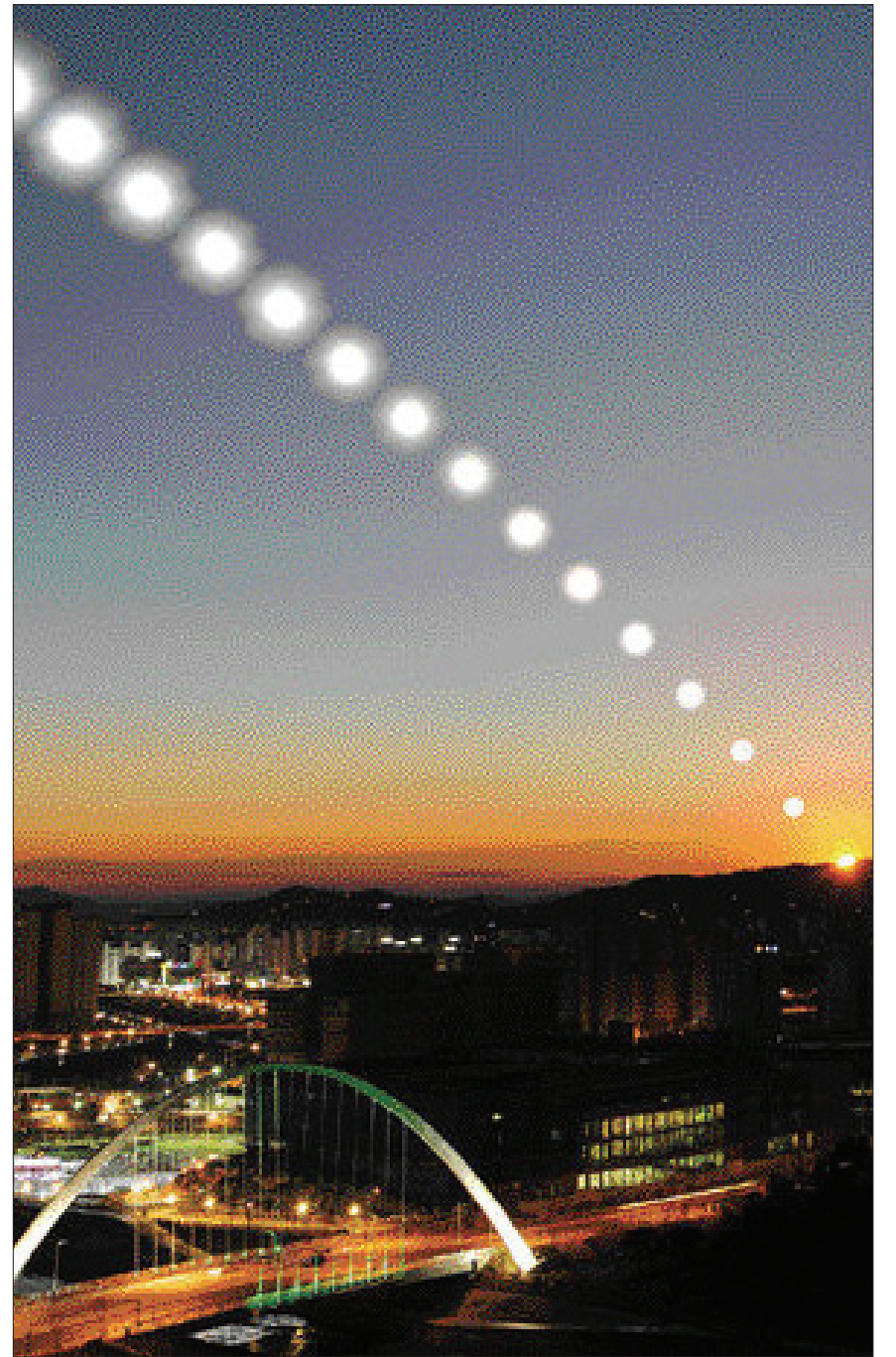
또, 광역경제권 설정 등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호남 민심의 반발이 크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2012년 완공'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밀어 부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시름·고통 모두 지는 해에...

전세계를 덮친 글로벌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가슴이 콩콩얼어 붙었던 한 해가 석양과 함께 저물고 있다. 짙은 어둠 뒤에 새벽이 오듯 새로 맞는 2009년은 '고통이 희망으로 바뀌는 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서 오후 3시부터 5시2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촬영.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회고 2008

④ 흔들리는 지방의회

비리·구속·주먹다짐 ... 부끄러운 1년

집행부 견제 못하고 밥그릇 싸움만

관광성 해의 연수 떠나 비난 여론도

올 한 해도 광주·전남 지방의회가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기에는 부족했다는 게 정지천 안팎의 공통된 평가다.

지역민들의 기대 수준은 높아진 반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와 추태, '제 밥그릇 챙기기'식 행태는 여전했고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존재감은 커녕 '세금만 축낸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 독점' 구도 속에서 지방의회를 둘러싼 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원은 물론 이들을 공천한 민주당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새해 첫날 광주시 서구의회 기초의원 1명이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와 추문은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다.

광주시의회에서는 복지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매입 비용 등 거액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의원이 구속됐다. 또 북구의회 의원 1명이 구속됐다. 또 북구의회 의원 1명이 구속됐다. 또 북구의회 의원 1명이 구속됐다.

동구의회 의원들은 동구청장과 비밀리에 개성 관광을 다녀와 '지방행정을 감시하라'고 불야생다 생산 가계를 고양이에 맡긴 꼴이

됐다. 전남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진도군의회 한 기초의원은 의회 의사 선거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목포시의회의원은 공무원행방해명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자리 나눠먹기 ▲주먹다짐 ▲담합 등 온갖 추태를 보여줘 지역민들을 실망시켰다. 의원간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싸고 주먹 다짐을 벌이다가 하연성 해의연수를 떠나던 이어 후반기 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뒷판'을 건넨 혐의로 의장이 구속되면서 지역민들의 이미지와 체면을 먹칠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복지정책 오락가락

요양시설 건립→배제→건립 ... 일관성 없어 빈축

광주시가 빛고를 노인건강타운 조성을 둘러싼 일관성 없는 복지 정책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당초 조성키로 했던 요양시설을 시정의 재검토 지시로 배제하겠다고 했다가, 감사원의 시정조치에 다시 추진키로 하는 등 장기적 안목 없는 복지 정책으로 스스로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치구의 방만한 사업 부추겨=광주시의회는 최근 빛고를 노인건강타운 내 치매병원 신축을 위해 광주시가 시설비 명목으로 18억4천25만 원을 편성한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광주시의 이같은 방침은 동구청의 인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동구청은 당초 치매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국비까지 확보했다가 뒤늦게 자치구 부담 예산 등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광주시에 인수를 요청했다.

지난 2006년 남구청이 추진하려다 예산난에 봉착해있던 김치종합센터

를 인수한데 이어 또다시 동구청의 치매병원 건립 사업을 떠안은 것. 이로 인해 광주시가 정책 실패 등의 책임은 따지지 않은 채 자치구의 무계획적인 사업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광주시가 이미 시립 치매병원을 위탁, 운영중이라는 점에서 이중으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돼 다른 시급한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원칙 없이 오락가락=광주시의회 유재신(민주·광산) 의원 등에 따르면 빛고를 노인건강타운 조성을 둘러싼 광주시의 입장이 지난 2년 간 세 차례나 바뀌었다.

광주시는 최근 빛고를 노인건강타운 내에 노인전문병원 수준의 치매병원과 요양시설을 조성, 주거·복지·문화·의료 기능이 복합된 국내 최고의 실버피아(Silverpia·노인친국)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2년 전과 비교하면 180도 바뀐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6년 7월 노인건강타운과 관련, 시의회 제 153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노인건강타운을 여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은 제작했다"는 내용으로 시의회에 보고를 했다.

요양시설 이용자 상당수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인 만큼 다른 노인들의 여가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건강타운 내에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워 당초 방침을 바꾼 것.

그러나 이 계획조차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변경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이 문제에 대해 시정조치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건강타운 부지 내에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결국 노인건강타운 내 요양시설 건립과 관련된 광주시 태도는 2006년 1월 건립→2006년 7월 제외→2007년 4월 건립 순으로 오락가락한 셈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MDPass 의(醫)학원 (Medical Academy) featuring a grid of faculty members with their names and titl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cademy. The text includes '의·치의학/약학' and '전문대학원 MDPass 의(醫)학원'.